

다니엘기도회뉴스



오늘의 강사
줄리조 집사

미래에 대한 근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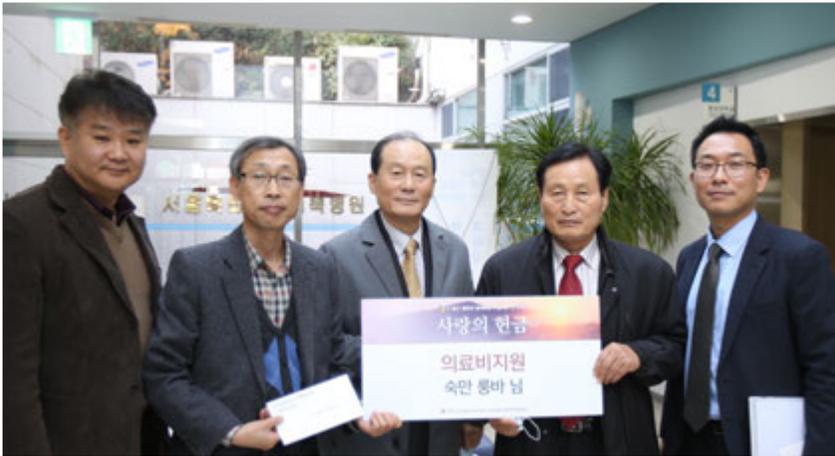
- 디모데전서 4:5 -

- 뉴욕기업 COO(Chief Operating Officer - 최고 경영자) 역임
- '강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을 이르고 온다' 저자
- 다음 세대 / 가정 사역 / 직장 제단 강연 및 캠프 강사



내일의 강사
사티쉬쿠마르 목사

· 현 인도 갈보리템플 담임목사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포토 스케치



다니엘기도회 에티켓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예절

1



자리 잡아주지
않기

2



가운데 앞좌석
부터 앉기

3



음식물 반입
하지 않기

4



휴대전화
전원은 꺼놓기

5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기

6



안내위원회에
협조하기

7



대중교통
이용하기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장무송 목사 - 다니엘 4:17 -

다니엘기도회는 일만여 교회가 참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합 예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 위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말씀과 메시지 그리고 제목까지도 다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말씀하라 강권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마음에 병이 들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때에 그는 영혼이 깨어나며,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왕의 그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더 크신 왕인 하나님께 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삼년에 그가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할 때,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으나 바사국의 군주가 막음으로 20일을 머물다가 마지막 날에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사단은 방해하며 반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은 이기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10일 동안 채식과 물만을 먹었으나,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도 다스리십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질병아 물러가

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는 기도함으로 심장을 이식 받고 살아난 한 자매의 기적 같은 간증을 들었고, 사경을 헤매는 자를 향해 “그 영혼에게 말씀해주십시오, 회개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그가 주를 만나고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도 풍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작으로 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창의성으로 우리는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공부나 외모 등 본질외적인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풀무불 같고 사자굴 같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평안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 우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희망이며 축복입니다. 기도를 통해 5000만 민족이 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돈, 건강, 재능, 기회 등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풍랑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양미동 목사에게 전해주세요”



양미동 목사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양미동 목사(55)는 인생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20대에 오른손을 다친 후, 더 이상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화재로 인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관절 뼈가 끊어져 인공관절 수술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목발을 짚을 때 왼손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손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경우 왼손마저 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휘어 통증도 심할뿐더러 골수염이 악



화되어 암으로 진행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까지 22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버티기 힘든 인생을 살아온 양미동 목사는 현재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자폐 등 각각의 장애를 가진 8명의 장애인들과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사회의 무관심 속에 갇혀 지내는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울타리가 없는 장애인 시설을 만든 양미동 목사는 그들이 마음껏 물리치료를 받고,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기도 힘든 연약한 육체를 지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 위를 걷는 강인한 믿음을 가진 양미동 목사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사랑의헌금 참여방법

이번 다니엘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드려지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선교사, 농어촌 및 미자립 목회자, 외국인 등 수술과 치료, 긴급한 도움으로 160여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많은 참여바랍니다.

01



사랑의헌금 봉투

매일 예배 시에 헌금합니다

02



ARS 전화 후원

1877-0110

(휴대폰 소액결제)

03



온라인 헌금

585-000711-01-069

(기업은행) 오윤교회

04



스마트폰 헌금

오윤교회 홈페이지(oryun.org)

및 QR코드 참여 (카드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다니엘기도회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엄청 많은 귀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셨어요. 전날 전도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 귀신들린 사람이 잃어버린 자였어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무서워했어요. 제발 죽이지 말고 저 돼지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돼지한테 보내주니 그 사람은 옛날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주셨어요. 돼지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는 조금 무서웠어요. 나는 잘 때 꿈에서 가끔 귀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귀신이야기가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꿈에 나오는 귀신도 예수님이 쫓아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정말 꿈에 귀신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 했더니 예수님이 꿈에 나오는 귀신도 없애주시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아침에 잠이 와서 조금 힘들지만 다니엘기도회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니엘기도회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나는 다니엘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황윤건(5세) | 유아부



저는 7살 광래나입니다. 유치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다니엘기도회를 시작한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엄마에게 저도 다니엘 기도회에 엄마와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 4살 동생과 같이 어린이 다니엘기도회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 예배는 친구들을 날마다 만나고 게임도 하고 즐거워요. 어린이 다니엘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고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쁜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니엘기도회를 참석하고 나서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중의 한국의 위인 책에 나오고 싶어졌어요.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세계의 위인 책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후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제일 소중한 분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광래나(7세) | 유치부



P 주차 안내

- 주차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셔틀버스는 금요기도회 때보다 30분 일찍 운행됩니다.
- 교회 종직자들은 교회 외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성고 운동장 주차차량은 꼭! 당일 출차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 1 옥외주차장 2

보성고등학교 주차장 3

